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현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김영민** · 임영식***

초 록

본 연구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현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민주적일수록 자아탄력성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대전화의존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현대전화의존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방식이 민주적일수록 현대전화의존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녀와의 갈등상황이나 문제해결시 통제나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증가시키는 물론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증가시키고 부적응행동인 현대전화의존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현대전화의존, 자기주도학습, 구조모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본 연구는 2011학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전공 교수, 교신저자, yslim@cau.ac.kr

I. 서 론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의 상징인 글로벌시대는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한다. 창의적 인재는 독창적이고 유연하며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변화에 대처하고 변화를 창출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능력은 타율적이고 의존적인 학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기주도적학습에 의해 길러질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능력(self directed learning or self regulated learning)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수행을 스스로 활성화시키고 변형 및 유지시키는 자기조절학습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성취를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어떻게 조절하여 향상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Zimmerman & Kitsantas, 1997). 즉,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속도를 조절하며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의 동기적 특성과 학습과정이 중시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전략이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활용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현재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환경의 영향을 배제한 채 학습차원에서만 바라보는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예를 들어 자기주도학습과 학습성취와의 관련성, 자기주도학습의 개념 및 구성요소, 학습동기, 학습전략, 인지 등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권성연·강명희, 2008; 김아영 외, 2005; 송인섭·박성윤, 2000; 송인섭, 2006; 양명희, 2000; 이명자·송영명, 2005; 신민희, 1998; 정미경, 1999; Boekaerts et al., 2000; Corno, 1986; Paris & Paris, 2001; Zimmerman, 1986; Zimmerman & Schunk, 2008). 그러나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며 자기주도학습능력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자기주도학습과 환경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한 인간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은 다양하며 그 변인들이 발달과정에 있어 개인의 다양한 차이를 낳게 한

다. 그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가족과 또래의 영향은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의 영향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부모의 양육 방식은 발달과정 속에서 많은 영역에 걸쳐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기주도학습능력도 양육방식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며 부모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보고 경험하며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이해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김문신·김광웅, 2003; 남재희, 2004). 또한 사회적인 상황적 요구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고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현재의 힘든 상황을 인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Corno, 1993; Paris et al., 2001; Zimmerman & Schunk, 2008).

자기주도학습에 관하여 사회인지적 관점은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Bandura를 비롯하여 사회인지적 이론가들은 자기조절에 관해 인간의 행동은 개인, 환경, 행동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으며 개인의 행동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개인적 요소로 제한하지 않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도 개인과 여러 환경의 역동 속에서 발달한다(Bandura & Wood, 1989)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휴대전화 의존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 통계에 의하면 게임을 비롯하여 디지털 유해매체에 접속하는 비율이 60%에 이르며 전체 게임 중독자 191만 3천명 중 93만 8천명이 청소년으로(성윤숙, 2010) 매체를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률이 증가하고 있어 또 다른 청소년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0년에 실시한 정보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사용 시간낭비 경험자 비율은 다소 감소되어 인터넷상 조절능력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평소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감을 느낀다는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년도 39%에서 44.5%로 증가하였다. 휴대전화의 부적절한 사용은 인터넷중독에 이어 휴대전화중독 또는 휴대전화의존의 심각한 부적응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늘 손에 달고 살며 심지어 수업 중에도 친구에게 문자보내기 등을 하느라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하거나 심지어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횟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부적응적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윤숙, 2006). 또한 휴대전화사용 동기에 관한 연구결과에서(김신동, 2001; 김혜수 외, 2007; 박웅기, 2003; 성윤숙, 2008) 밝혀진 휴대전화의 사용목적 또는 동기가 오락이나 휴식, 즉각성, 의존성,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조절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학습의 전 과정을 자신이 계획하고 조절하고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을 감소시키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중요변인을 찾는데 목적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삶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휴대전화의존이 자기주도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적 관점 하에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휴대전화의존의 관계를 규명하고, 긍정적인 자원인 자아탄력성이 이들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인과적 관계 및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자기조절학습, 자기규제학습 등 학자들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표현이 다를 뿐 학습자의 주도적인 역할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이다. 1980년대 이후 자기주도학습은 Zimmerman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어떻게 자신의 학습을 조절해 나가는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Paris & Paris, 2001) Shunk, Zimmerman and Pintrich 등의 학자가 여러 학습이론들을 기초로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려는 시도를 하였다(주호수, 2003).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Zimmerman(1986)은 자기주도

학습을 메타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학업성취를 촉진하는 실질적 학습활동으로 보았고, Boekaerts, Pintrich and Zeider(2000)는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지, 정서, 행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 및 유지하는 과정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종합하면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점검하고, 계획하고 수행하며 산물을 만들어내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아영·차정은, 2010; 양명희, 2005; Fralick, 1990).

지금까지 자기주도학습에 관해 수행된 연구는 동기, 인지, 학습전략,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을 주로 다루어왔으며 자기주도학습에 적합한 가정환경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의 주어진 환경 및 자원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Bandura, 1986; Corno, 1986) 환경적 관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육성할 수 있는 요소들의 탐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매우 큰 영향변인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2. 양육방식과 자기주도학습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학자에 따라 유형화하는 방법이 다양하며 애정, 합리성, 통제에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Baumrind(1991)는 온정성의 정도와 통제에의 정도,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처벌적(독재적), 허용적, 거부적, 민주적(권위적) 양육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처벌적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요구는 많이 하지만 자녀의 요구나 관점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으며 자녀의 잘못에 대해 처벌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복종을 얻어내기 위해 강압을 이용한다. 허용적인 부모는 자녀의 요구에 대해 반응하지만 자녀들에게 요구하진 않는다. 거부적인 부모는 자녀의 생활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녀의 요구에 반응하지도 않고 자녀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민주적인 부모는 애정적이며 단호하고 자녀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이들은 자녀의 변화에 민감하고, 이성적 설득을 통해 자녀들과의 갈등상황을 해결한다. 또한 자녀들에게 규칙을 설명하고 문제를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한다(임영식 외, 2006). 따라서 민주적 양육방식은 문제갈등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및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양육방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합리적 지도, 적절한 한계성,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개방적 의사소통 등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었고, 과잉보호, 허용적, 강압적 방식은 낮은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박성연·이은경, 2009; 박성연 외, 2009). 또한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었고(유은희·임미옥, 2006), 정서적 학대나 방임적 태도일수록 자기조절능력이 저하되었다(박성연 외, 200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통제행동이나 행동적 통제행동,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등이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김성일·김남희, 2001; 박성연 외, 2009)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청소년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이며 부모의 감독(관심)과 신뢰는 자녀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일 때 자녀의 또래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은 가족들로부터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받기를 원하며 공부에 대한 선택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러한 욕구는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충족되므로 부모가 자녀들의 학습에 관련된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적 양육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자기의존도가 높으며 자신의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학문적 과제에 몰입하는 성향을 보이며 숙달목적을 지향하였다(Gonzalez et al., 2001). 애정적이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며 합리적인 원칙하에 일관성 있는 양육방식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상황이나 문제해결에 있어 합리적인 설명은 자녀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자기주도적인능력을 발달시킨다고 예측할 수 있다.

양육방식과 학습의 관련성에서는 민주적 양육방식이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hen et al., 1997; Steinberg et al., 1992) 학습동기의 일종인 성취목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의 민주적인 양육방식이 자녀로 하여금 숙달목적을 지향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Steinberg et al., 1992; Gonzales et al., 2002). 양육방식이 자기주도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루어진 연구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로 미루어 짐작컨대 양육방식이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리라 유추할 수 있다.

3. 양육방식과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아통제의 수준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자아의 동기조절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Block & Block, 1980). 스트레스와 변화의 상황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고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resilience’ 또는 ‘resiliency’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탄력성 또는 적응유연성으로 부르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환경의 스트레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보호요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밝혀진 보호요인으로는 청소년의 연령,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제해결 기술, 일반지능, 대처능력, 통제신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등이 있다(이선영·정현희, 2010; Masten, 2001).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자아탄력성이 청소년기에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성경·심혜원, 2002).

양육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부모의 일관적인 양육태도와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의 분위기, 긍정적인 가정의 특성, 즉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이해수준과 부모와 아동의 친밀성이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었다(신지연·이윤주, 2006). 또한 애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방식은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고, 양육방식이 긍정적일 때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결과가 있으며(이수현·최해립, 2007),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낙관성, 활력성, 대인관계 등 자아탄력성의 전반적 영역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이은미·박인전, 2002).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자아탄력성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써 부모의 양육방식이 크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4. 양육방식, 휴대전화의존, 자아탄력성, 자기주도학습능력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휴대전화의존’ 또는 ‘휴대전화중독’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휴대전화의존은 휴대전화에 몰입하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며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다(구현영·박현숙, 2010; Han & Hur, 2004). Goldberg (1996)는 인터넷중독의 진단기준을 DSM-IV의 약물중독(intoxication)형식에 준하여 의존, 내성, 초조, 금단의 4가지 증상이라고 보았다. 아직 인터넷 중독을 약물중독과 같은 중독증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진단기준도 일반적으로 인터넷중독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장혜진·채규만, 2006). 휴대전화의존은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 내성, 불안, 금단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의존’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고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심리적 의존상태를 의미하고, ‘내성’은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더 많은 사용(사용요금, 사용시간)을 해야 만족을 느끼는 증상을 의미하며, ‘초조, 불안’은 휴대전화 사용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 정신적으로 초조, 불안이 야기되는 증상을 의미한다. ‘금단’은 휴대전화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을 갖게 되며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지 않을 때 중요한 전화나 메시지들이 와 있을지 몹시 궁금해 하고 초조해하는 증상을 휴대전화중독으로 정의하였다(장성화, 2011).

휴대전화의존(중독)은 인터넷중독과 마찬가지로 우울성향과 충동성이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외로움 극복이나 자극욕구,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동기로 인해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웅기, 2003).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경향성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충동성, 우울, 공격성 수준이 높고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휴대전화의존 경향이 더 높았다(김혜수 외, 2007).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은 많은 편리하고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공존하는데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이용에 지나친 집착을 보인 나머지 휴대전화의존, 특히 문자 보내기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되고 성적이 하락하여 부모와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수업 중에도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경우가 2명 중 1명 이상이었다(한국정보문화원, 2005). Ling

(2000)에 의하면 수업시간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면 수업에 대한 집중이 깨지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습을 방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학업성취 및 자기주도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 간에 실제적인 관계를 본 연구는 없지만 인터넷중독 수준에 따른 자기통제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인터넷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았고, 자기주도학습의 하위변인들에서 인터넷의 일반적 사용자에 비해 고위험 사용자가 유의하게 낮은 결과가 있었으며 특히 행동통제 영역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았다(한정선·김세영, 2006).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및 일관된 양육방식은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의 감소 및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이은미·박인전, 2002; 김지경 외, 2010). 이는 아동·청소년발달에 있어 부모의 양육방식이 많은 영역에서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적응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적대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이 부적응행동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긍정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아개념 및 정서적 안정성이 높았고 학업성취를 비롯하여 학교적응을 더 잘하였다(이윤주, 2004).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신감과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조건적인 관심이 아닌 행동에 대한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및 통제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좀 더 잘 조절하였다(김아영 외, 2010).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을 잘하고 중도탈락률이 낮았으며 좌절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각, 인지, 행동전략을 역동적으로 조절하였고(Block & Kremen, 1996; Fassig, 2003) 학업에 있어 성취도가 높고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는 경향이 높았으며 생산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하였다(Compas et al., 1995; Klohmen, 1996).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을 미루어 짐작해볼 때 자기주도학습과 휴대전화의존, 자아탄력성, 양육방식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양육방식과 자아탄력성, 휴대전화의존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과적인 영향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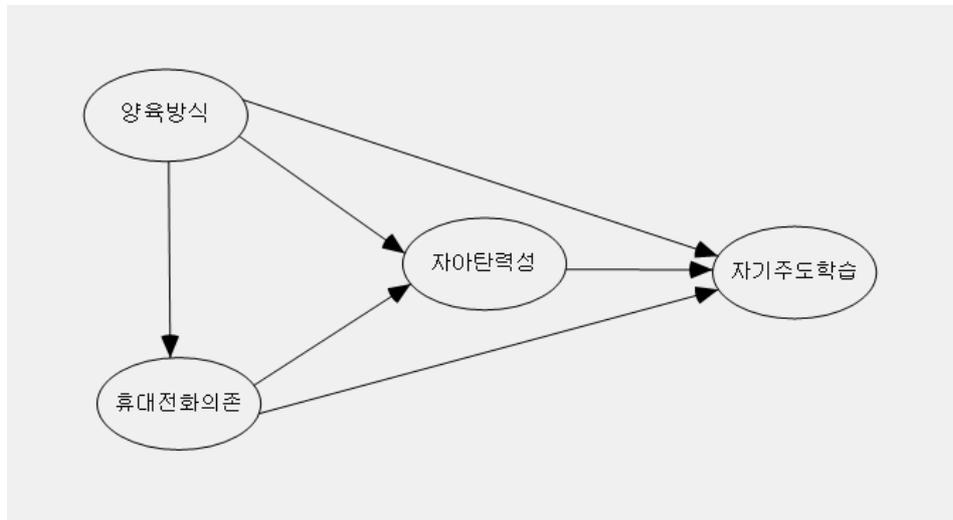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양육방식은 자기주도학습과 자아탄력성, 휴대전화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2. 양육방식은 자아탄력성을 거쳐 자기주도학습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휴대전화의존은 직접적으로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가설에 따라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중에서 중1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235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학생이 1177명(50.1%), 여학생이 1174명(49.9%)이었다.

2. 측정도구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구성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자료에서 정의된 요인과 문항내용을 참고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은 모두 동일하게 4점 척도이다.

1)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자기조절학습, 자기규제학습 등 학자들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학습자의 주도적인 역할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한 동기조절, 행동통제, 시간조절을 하는 정도를 말하며 양명희(2000)가 개발한 것을 김세영(2006)이 요인분석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패널 설문지 문18)에 해당되며 ‘성취가치’, ‘행동통제’, ‘숙달목적지향’, ‘학업시간관리’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 18문항이며 신뢰도는 $\alpha = .866$ 이다.

2) 자아탄력성

본 척도는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하였으며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역한 후 수정 및 보완한 척도로써 문19)의 14문항이며 신뢰도는 $\alpha = .839$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내용은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등이다.

3) 양육방식

양육방식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검사 중 17문항을 발췌한 패널의 양육방식 문항들(감독, 비밀관성, 과잉간섭, 애정, 과잉기대, 합리적 설명) 중에서 Baumrind의 민주적 양육방식에 해당되는 감독(관심) 3문항, 애정 3문항, 합리적 설명 4문항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양육방식은 민주적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문항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께

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등의 10문항이며 신뢰도는 $\alpha = .710$ 이다.

4) 휴대전화의존

본 척도는 이시형 외(2002)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패널에서 7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휴대전화의존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의존, 휴대전화에 대한 심리적 의존, 사용중단시 불안감 등에 관련된 문항으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의 7문항으로 문항간 신뢰도는 $\alpha = .854$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이 높음을 의미한다. 휴대전화의존은 현재 휴대전화중독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으로 정의한다.

3. 분석절차 및 방법

연구모형 [그림 1]을 분석하기위한 방법으로 SPSS 통계패키지 18 및 Amos 16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주요변인의 관계 및 영향력에 대한 구조적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절차로는 먼저, 자료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정상분포 조건인 왜도 < 2, 첨도 < 4 이하로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었다(Hong et al., 2003).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치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치

(N=2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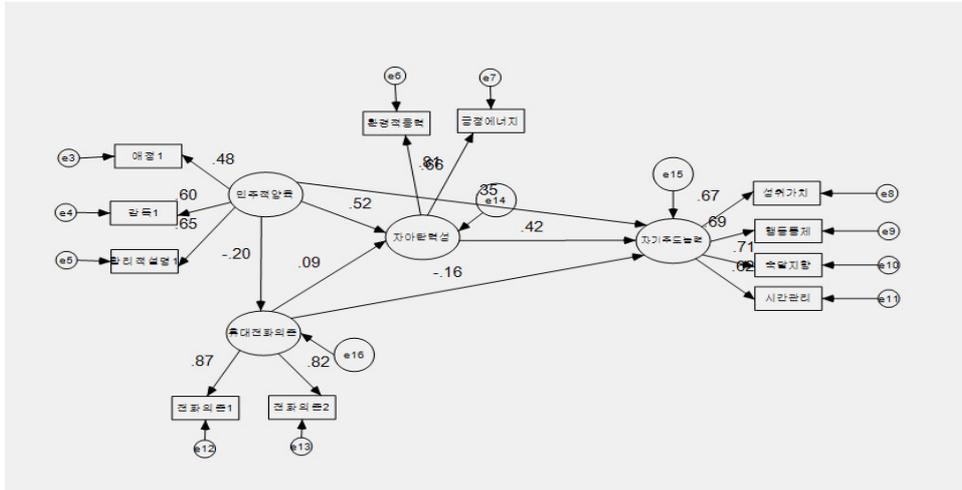
잠재변수	측정변수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기주도학습	성취가치	7	3.04	.60	-.38	.20
	행동통제	5	2.45	.53	.12	.16
	숙달지향	2	2.71	.74	.01	-.55
	시간관리	4	2.43	.70	.18	-.13
양육방식	애정	3	2.68	.36	-.29	.49
	감독(관심)	3	3.16	.65	-.61	.14
	합리적설명	4	2.83	.64	-.41	.22
자아탄력성	환경적응력	8	2.95	.55	-.11	-.25
	긍정에너지	6	2.87	.48	-.00	.25
휴대전화의존	의존1	3	2.20	.71	.32	-.29
	의존2	4	1.95	.72	.59	-.17

2.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2>와 같고 최종 연구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2> 모형의 적합도

Index	χ^2	df	CFI	TLI	RMSEA
모형	424.64	38	.943	.902	.066



[그림 2] 최종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χ^2 는 기각되었으나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적합도지수의 평가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RMSEA, TLI, CFI의 모형의 적합도지수는 좋은 적합도로 평가되었다.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홍세희, 2000). Browne과 Cudeck(1993)에 따르면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05 ~.08이면 적절한 적합도이다.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다(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따라서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측정변수들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육방식, 현대전화의존, 자기주도학습능력, 자아탄력성을 나타내는 각각의 측정변수들이 모두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측정모형 분석결과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양육방식 -> 애정	1.00	.48		
양육방식 -> 감독	2.27	.60	.14	16.02***
양육방식 -> 합리적 설명	2.39	.65	.15	16.26***
휴대전화의존 -> 의존1	1.00	.87		
휴대전화의존 -> 의존2	.96	.82	.07	12.63***
자기주도능력 -> 성취가치	1.00	.67		
자기주도능력 -> 행동통제	.93	.69	.03	26.52***
자기주도능력 -> 숙달지향	1.33	.71	.05	26.99***
자기주도능력 -> 시간관리	1.09	.62	.04	24.51***
자아탄력성 -> 긍정에너지	1.00	.81		
자아탄력성 -> 환경적응력	.93	.66	.05	20.68***

*** p <.001

구조모형분석은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의존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 따라서 양육방식은 자기주도학습과 자아탄력성, 휴대전화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리는 연구가설 1이 검증되었으며 자아탄력성을 거쳐 자기주도학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리는 연구가설 2도 검증되었다. 연구가설 3으로 설정한 휴대전화의존이 자아탄력성을 거쳐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경로는 휴대전화의존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아탄력성을 거친 경로는 유의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표 4> 구조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양육방식 -> 휴대전화의존	-.71	-.20	.11	-6.21***
양육방식 -> 자아탄력성	1.19	.52	.09	13.07***
휴대전화의존 -> 자아탄력성	.06	.09	.02	3.08
휴대전화의존 -> 자기주도능력	-.10	-.16	.02	-6.21***
자아탄력성 -> 자기주도능력	.43	.42	.04	11.47***
양육방식 -> 자기주도능력	.81	.35	.09	8.88***

*** p <.001

본 연구에서 양육방식은 측정도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적인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양육방식이 민주적일수록 휴대전화의존은 낮아지고 ($\beta = -.20$, $p < .001$),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5$, $p < .001$). 휴대전화의존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아탄력성 경로를 거쳐 자기주도학습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078$, $p < .001$). 즉, 휴대전화의존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였고 Sobel Test검정 결과 Z값이 2.954로 $p < .01$ 수준에서 1.96보다 큰 값을 나타냄으로써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휴대전화의존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양육방식이 민주적일수록 자아탄력성은 높아지며($\beta = .52$, $p < .001$) 이로 인해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자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의 창조적 생산자가 갖추어야 할 최상의 전략이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인 환경의 조성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육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습을 성공적이게 하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차원의 자원을 이끌어내고 조절 및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학습과정을 이끌어나가고 성공적인 결과물을 낳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변인으로 양육 방식과 자아탄력성에 주목하였고 민주적 양육방식이 자기주도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 청소년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휴대전화의존이 자기주도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휴대전화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연구의 초점을 두었으며 이들 변인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변인

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에 대해 통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대개 청소년의 휴대전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디어 이용행태에 따른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은 어떤 변인들이 휴대전화의존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적자산인 자아탄력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휴대전화의 부적절한 사용이 자기주도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민주적일수록 청소년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아졌고, 스트레스와 역경의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김미예·박완주, 2008; 장경문, 2003; 정문자·어주경, 2000; Kirby & Smokowski, 1997)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휴대전화의존은 부모의 양육방식이 민주적일수록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휴대전화의존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민주적일수록 휴대전화의존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휴대전화사용을 설명하는 주요변인이며(박주신·강문희, 2007; 양심영, 2002; 이혜연·강차연, 2007), 휴대전화중독의 예측변인으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연미 외, 2009)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영향력이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변인 중에서도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구체화되었다. 또한 휴대전화의존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비록 동일한 기존 연구는 없지만 휴대전화의존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학업적 부적응이 높게 나타난다(이정숙·명신영, 2007)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며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다(구현영·박현숙, 2010; Han & Hur, 2004)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미성숙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휴대전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연구결과들(박순천·백경임, 2004; 성윤숙, 2008)에서 유추해볼 때 학습상황이나 공부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에서 미숙하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달성해야 할 많은 중요한 과업들 중에서 학업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수업 중에도 문자보내기를 하는 등의 행동은 학업에 집중을 못하는 학업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한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에 대하여 학습의 계획에서 학습의 전 과정은 물론 학습의 결과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전화의존과 관련지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자기주도적 학습자를 길러낼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휴대전화의존과 관련하여 학업상황에서 중요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휴대전화의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써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기주도학습을 구체적으로 관련지어 검증함으로써 이 분야의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가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게 하는 연구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휴대전화의 긍정적인 사용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업과 삶의 전반에 있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에 주목하였고 휴대전화의존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아탄력성을 거쳐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아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2차분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간의 한계성일 수도 있으며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여러 중요변인들과의 관계와 영향력이 좀 더 명확히 규명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이들에 대한 영향변인으로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에 주목하고 연구를 시도하였고, 부모의 양육방식이 민주적일수록 휴대전화의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증가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산이며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가정의 민주적 양육방식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방식은 자녀가 자신의 학습 및 삶에 있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키워드 일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되 간섭은 하지 않는 태도와 자녀와의 갈등이나 문제해결 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인 한계점이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축되어 있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전국 대규모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이미 구성되어 있는 문항들 중에서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해야하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관계 및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연구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으나 확인되지 않았을 다른 대안 모형이 탐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른 많은 변인들을 고려한 경험적인 연구가 축적되어 관계의 방향성과 영향력이 좀 더 명확히 입증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에 발달궤적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이러한 한계점들이 후속연구들에서 보완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현영·박현숙(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 제16권 제1호, pp. 56-65.
- 권성연·강명희(2003). 자기조절학습의 단계와 구성요인 규명. 교육학연구, 제41권 제3호, pp. 239-273.
- 김문신·김광웅(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타당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제6권 제1호, pp. 3-13.
- 김미예·박완주(2008).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비행성향. 이동간호학회, 제14권 제4호, pp. 415-422.
- 김성일·김남희(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발달, 제14권 제1호, pp. 75-89.
- 김세영(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동(2001). 이동전화 확산에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요인. 한국언론학보, 제45권 제2호, pp. 62-85.
- 김아영·주지은·정소영(2005). 수학성취 수준별 집단의 성취도와 학습전략 사용 및 변화에 대한 자기조절학습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3호, pp. 677-698.
- 김아영·차정은(2010).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양육행동 지각,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자기조절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3호, pp. 563-582.
-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수·배성만·현명호(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환경적 특성. 한국심리학회, 제12권 제2호, pp. 389-391.
- 남재희(200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 및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성연·박응임·한세영(2009). 아동양육방식. 아동학회지, 제30권 제6호, pp. 1-14.

- 박성연·이은경(2009).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의 타당성 연구: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아동학회지, 제30권 제2호, pp. 211-230.
- 박순천·백경임(2004).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의 MMPI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9호, pp. 135-147.
- 박용기(2003). 대학생들의 이동전화 중독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7권 제2호, pp. 250-281.
- 박주신·강문희(2007). 중학생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애착과의 관계. 심리치료, 제7권 제1호.
- 성윤숙(2006).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및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2호, pp. 291-321.
- 성윤숙(2008).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이용동기 및 결과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 제29권 제4호, pp. 181-197.
- 성윤숙(2010).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연구보고 10-R0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인섭(2006). 현장적용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서울: 학지사.
- 송인섭·박성윤(2000). 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제14권 제2호, pp. 29-64.
- 신민희(1998). 자기조절학습 환경이 학습성취와 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제14권 제13호, pp. 177-204.
- 신지연·이윤주(2006).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부적응, 부모양육태도의 관계. 사회과학논집, 제5권, pp. 111-127.
- 양명희(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명희(2005). 자기조절학습과 특질과의 관련성 검토: MBTI 성격 차원과 학습유형을 중심으로. 교육심리학회, 제19권 제4호, pp. 1043-1064.
- 양심영(2002). 고등학교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02-R24).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유성경·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4호, pp. 189-206.

- 유은희·임미옥(2006).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 회지*, 제27권 제6호, pp. 97-106.
- 이명자·송영명(2005). 자기조절학습전략,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 업적 동기와 자기평가의 차이. *중등교육연구*, 제53권 제1호, pp. 85-104.
- 이연미·이선정·신효식(2009).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환경 변인.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제20권 제3호.
- 이윤주(200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 급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5권 제2호, pp. 435-449.
- 이선영·정현희(2010).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행동: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6호, pp. 147-170.
- 이수현·최해립(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의 시험 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2호, pp. 321-337.
- 이시형·김학수·나은영(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은미·박인전(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제7권 제1호, pp. 3-24.
- 이정숙·명신영(2007).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 및 휴대폰 중독 정도에 따른 또래 관계의 질,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4호, pp. 67-86.
- 이혜연·강차연(2007). 중학생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애착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학생 생활연구*, 제20권.
- 임영식·김혜원·설인자·조아미·한상철(2006). *청소년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장경문(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제10권 제4호, pp. 143-161.
- 장성화(2011). 개인, 가족, 학교변인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설명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pp. 1-20.
- 장혜진·채규만(2006). 기술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 건강*, 제11권 제4호, pp. 839-852.

- 정문자·어주경(2000). 저소득층 어린이집 교사와 유아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요구도 비교. *유아교육연구*, 제20권 제3호. pp. 23-47.
- 정미경(1999).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관한 구조모형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호수(2003). 자기주도적 학습의 개념화와 교육적 시사점. *교육과정연구*, 제21권 제1호, pp. 203-221.
- 한국정보문화원(2005). 청소년의 휴대전화사용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정선·김세영(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2권 제2호, pp. 161-188.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임상, 제19권 제1호, pp. 161-178.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 Bandura, A. & Wood, R. E.(1989). Effect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and performance standards on self regulation of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6, pp. 805-814.
- Baumrind, D.(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1, pp. 56-95.
- Bentler, P. M.(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7, pp. 238-246.
-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 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 Block, J. H.,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 Boekaerts, M., Pintrich, P. R., & Zeider, M.(Eds.)(2000). *Handbook of self regul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s*. Newbury Park, CA: Sage.
- Chen, X., Dong, Q., & Zhou, H.(1997). Authoritative and authoritarian parenting practices and social and school performance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Vol. 21 No. 4*, pp. 855-873.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6*, pp. 265-293.
- Corno, L.(1986). The metacognitive control components of self regulated learning. *Com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11*, pp. 333-346.
- Corno, L.(1993). The best-laid plans: Modern conceptions of volition and educational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Vol. 22*, pp. 14-22.
- Fassig, E. I.(2003). *Attachment and resilience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college in college freshmen*. dissertation of Northern Colorado university.
- Fralick, K. G.(1990). *Study skills: a junior high middle school intergrade curriculum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Goldberg, I.(1996). *Internet addiction disorder*.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 Gonzalez, A., Greenwood, G., & WenHsu, J.(2001). Undergraduate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parenting styles. *College Student Journal, Vol. 35 No. 2*, pp. 182-193.
- Gonzales, A., Holbein, M. F. D., & Quilter, S.(2002). High school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parenting styl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27 No. 1*, pp. 450-470.
- Han, J. L., & Hur, G. H.(2004).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mobile addiction

- scale.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8, pp. 138-165.
- Hong, S., Malik, M. L., & Lee, M. K.(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Vol. 63, pp. 636-654.
- Kirby, L. D., & Smokowski, P. R.(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4 No. 2, pp. 425-446.
- Klohme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5, pp. 1067-1079.
- Ling, R.(2000). *We will be reached: The use of mobile telephony among Norwegian youth*. Telenor T & D Report, pp. 16-98.
- Masten, A. S.(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56, pp. 227-238.
- Paris, S. G., Bymes, J. P., & Paris, A. H.(2001). Constructing theories, identities, and action of self-regulated learners. In B. J. Zimmerman, & D. H. Schunk (Ed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etical perspectives*(pp. 253-287).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ris, S. G., & Paris, A. H.(2001). Classroom applications of research on self 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y*, Vol. 36 No. 2, pp. 89-101.
- Steinberg, L., Lambourn, S. D., Dornbusch, S. M., & Darling, N.(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i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Vol. 63 No. 5, pp. 1266-1281.
- Tucker, L. R., & Lewis, C.(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 38, pp. 1-10.
- Zimmerman, B. J.(1986). Becoming a self regulated learner: Which are the key

subprocess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11*, pp. 307-313.

Zimmerman, B. J., & Kitsantas, A.(1997). Developmental phases in self regulation: shifting from process goals to outcome goa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9*, pp. 29-36.

Zimmerman, B. J., & Schunk, D. H.(2008). *Motivation and Self regulated Learn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New Jersey: Mahwah.

ABSTRACT

Structural Model of Democratic Parenting Style, Ego-resilience, Cell phone Dependency, Self-directed Learning

Kim, Young-Min* · Lim, Young-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and effects of parenting styles, ego-resilience, cell phone depend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subjects consisted of middle school 1st graders, whose data was taken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of 2010.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more democratic the parenting style, the higher ego-resilie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as predicted; which also correlated with lower cell phone dependency. Additionally, cell phone dependency had a negative influence on self-directed learning and did not influence significantly upon ego-resilience. Our results reveal that parental love and devotion, including calmly discussing problems or mistakes made by their children was much more effective than strictness or punishment.

Key Words : democratic parenting style, ego-resilience, cell phone dependency, self-directed learning, structural model

투고일 : 3월 12일, 심사일 : 4월 24일, 심사완료일 : 4월 24일

* ChungAng University